

출범 715일에 1000만 고객... 모바일 금융장터 '우뚝'

금융, 플랫폼이 된다

<상> 카카오뱅크

금융의 판이 모바일로 옮겨지면서 이변이 일어났다. 우간다보다 못한 금융 경쟁력으로 회자되던 한국에서 인구규모에서 절대 우위에 있는 중국을 제외하고는 처음으로 고객 수 1000만명이 넘는 인터넷전문은행이 나왔다. 카카오뱅크다. 해외로부터 운영 노하우를 알려달라는 요청이 쇄도하고 있다. 앞으로 금융산업은 물론 금융소비자의 생활을 바꿔놓을 디지털 금융의 변화를 살펴본다. **<편집자주>**

카카오뱅크 고객수가 1000만명을 넘어섰다. 출범한 지 단 715일 만이다. 기존 시중은행이 비슷한 서비스를 내놓고 모바일 뱅킹을 대대적으로 개선했지만 여전히 하루 1만명이 넘는 사용자가 카카오뱅크로만 몰렸다.

카카오뱅크 성장세는 세계적으로도 유래가 없다. 13억명의 인구가 버티고 있는 중국의 위뱅크를 제외하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고객을 보유한 인터넷전문은행(이하 인터넷은행)이 됐다. 2000년대 초반부터 인터넷은행 진출이 활발했던 일본도 1위인 라쿠텐의 고객수가 700만명에 불과하며, 유럽에서는 고객수가 400만명을 넘은 곳은 찾기 힘들다. 국내 인구나 금융시장 규모를 감안하면 카카오뱅크의 성장세는 가히 폭발적인 수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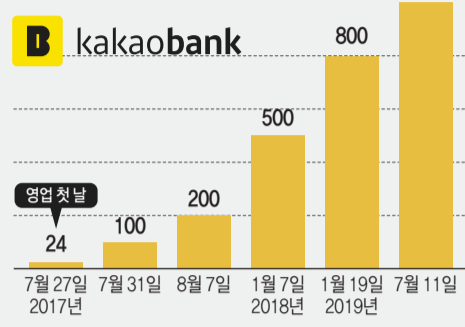
1000만 고객의 의미는 또 있다. 1000만명은 플랫폼 사업의 기반으로 충분한 숫자다. 이미 플랫폼으로서의 저력도 증명됐다. 주식계좌서비스를 시작한 지 넉 달이 되지 않아 100만좌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

◆카카오뱅크, 전 세계 '인뱅' 2위

14일 카카오뱅크에 따르면 지난 11일 22시 25분을 기점으로 계좌개설 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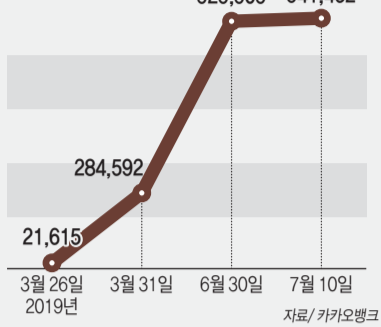
카카오뱅크 고객 수 추이

단위: 만명



카카오뱅크 주식계좌 이용자 현황

단위: 좌



하루 평균 1만4000명 고객 유입
 中 위뱅크 다음으로 고객수 많아
 주식계좌 개설 플랫폼 저력 증명

고객이 1000만명을 돌파했다.

카카오뱅크는 지난 2017년 7월 27일 대고객서비스를 시작했다. 영업을 시작한 첫 날 24만명이 카카오뱅크에 계좌를 열었고, 5개월 후인 2018년 1월 500만 고객을 기록했다.

새로 유입된 고객은 하루 평균 1만4000명이다. 계좌개설 고객이 가장 많았던 날은 영업시작 다음날인 2017년 7월 28일로 33만5523명에 달했다.

카카오뱅크 성장세는 해외에서 더 주목한다. 인구 규모로 비교하기 힘든 중국의 위뱅크 다음으로 고객수가 가장 많다.

인터넷은행이 활성화된 일본도 2001년 영업을 시작한 라쿠텐의 고객수가 지난 3월 기준 732만명에 그쳤다. 유럽에서 인터넷은행 성공사례로 꼽히는 영국의 레볼루트와 몬조도 각각 400만명, 200만명 수준이다. 미국에서는 아직 고객수가 200만명을 넘어선 곳이 없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모바일이 고객활동의 대세채널이 될 것으로 판단해 모바일 퍼스트 전략을 택한 것이 해외 인터넷은행과 차별화될 수 있었던 전략

이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26주적금·모임통장... 흥행 릴레이
 카카오뱅크의 흥행릴레이가 이어질 수 있었던 것은 편리함을 넘어 주요 고객인 젊은 층의 수요를 만족시킨 상품과 서비스다.

'26주 적금'은 카카오프렌즈 캐릭터와 함께 26주 동안 매주 1000원, 2000원, 3000원, 5000원, 1만원씩 많아지는 금액을 납입하는 적금이다. 금리로만

보면 연 1.9%로 큰 차이가 없지만 저축 목표에 도전하고, 그 과정과 결과를 SNS로 공유하는 즐거움을 제공하면서 돌풍을 일으켰다.

작년 6월 26일 출시한 '26주 적금'은 6개월 만에 누적 계좌 개설수가 110만좌를 넘어섰고, 지난 10일 기준 273만4677좌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단순히 게임화하는 것을 넘어 금융에 대한 소셜니즈에 본질적으로 접근한 상품과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강조했다. 모임 회비 관리를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한 모임통장 역시 지난 10일 기준 이용자는 285만1611명에 달한다.

◆카카오뱅크, 플랫폼으로 재탄생

1000만 고객은 단순히 새로운 기록을 넘어 플랫폼 가능성도 열어줬다. 상품의 흥행을 위해 다른 플랫폼을 찾아야 할 필요 없이 오히려 자체로 다른 생활서비스를 선보일 수 있는 플랫폼이 됐다.

카카오뱅크의 모바일금융플랫폼 서비스의 시작은 주식계좌 개설이다. 주요 주주인 한국투자증권과 시너지를 낸 상품이기도 하다.

카카오뱅크 계좌가 있는 고객이라면 누구나 카카오뱅크 앱에서 1~2분 이내에 주식계좌를 만들 수 있다. 기존 계좌 정보를 활용해 고객 입력사항이나 절차를 최소화한 덕분이다.

지난 3월 25일 서비스를 시작한 이후 일주일 만에 개설 계좌수가 30만좌에 달했으며, 지난 10일 기준 94만1452계좌로 집계됐다.

연계대출 서비스에는 현재 5개사가 참여 중이다. 카카오뱅크에서 대출이 거절된 고객에게 별도의 정보입력 과정 없이 제2금융권의 대출가능 금리와 한도에 대한 조회결과를 제공하는 서비스다. 고객이 직접 제2금융권에 접촉하는 것보다 금리나 한도조건이 유리하다.

/안상미 기자 smahn1@metroseoul.co.kr

日 수출규제 피해 中企에 1000억 지원

경영안정자금·컨설팅사업 진행

중소벤처기업부가 일본 수출규제로 피해 입은 중소기업에 지원한다.

중기부는 일본 수출규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총 1000억원 규모의 긴급 경영안정자금과 컨설팅사업을 진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지원을 위해 전국 12개 지방청에 일본수출규제 애로신고센터도 설치·운영한다. 중기부는 앞서 지난 9일부터 유관 기관 및 민간단체 등이 참여하는 '일본수출규제대응TF'를 가동한 바 있다.

애로신고센터는 중소기업 현장에서 피해현황과 애로 및 건의사항을 받는다. 접수 사항을 바탕으로 중기부 및 범정부 TF는 애로해소를 위한 정책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일본수출규제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기업에는 피해 최소화를 위해 긴급경영안정자금, 단기 컨설팅 등의 지원이 제공된다. 매출감소 등 피해가 구체화된 기업에는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 중기부는 오는 8월부터 일본수출규제 피해기업 지원을 위해 신청조건에

'일본수출규제 피해기업'을 추가한다.

일본수출 규제 피해기업은 매출 10% 이상 감소 요건 적용에서 제외하고, 3년간 2회 지원 횟수 제한에 예외를 두는 등 지원조건도 완화한다. 중기부는 긴급경영안정자금의 당초 예산이 소진됐기 때문에 추경안으로 1080억원 제출한 상태다.

또, 일본 수출규제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대해 기업 맞춤형 '컨설팅사업'도 진행한다. 컨설팅 사업은 일본 피해 중소기업만을 위한 신규 사업이다. 민간전문가를 활용해 수출규제회피, 대체 수입처 확보 등 컨설팅을 통해 중소기업의 일본 수출규제에 따른 애로사항을 해소한다. 중기부는 이 사업을 위해 추경안 36억원 제출했다.

중기부 김영환 일본수출 규제대응 TF팀장 및 중소기업정책실장은 "현장의 중소기업과 긴밀히 소통하여 중소기업 피해를 최소화할 것이다"며 "이번 계기로 소재부품장비 분야 글로벌 수준의 중소기업이 육성될 수 있도록, 가용한 모든 정책수단을 최대한 동원할 것이다"고 했다.

/배한님 기자 ericabae1683@

참좋은여행이 참좋은당신께

언제 만나도 기분 좋은 사람,
언제 불려도 기분 좋은 그 이름,
'고객님'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해 준 **당신**이 있었기에

우리는
더 많은 누군가의 **참좋은여행**으로
기억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고객을 **주인공**이자 **주인**으로 바라보는
참좋은여행이 되겠습니다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선정 (2018년 11월, 2019년 1월)
4년 연속 가장 친절한 여행사 (2016, 2017, 2018, 2019년)

지점: 부산 051-600-5900 / 대구 053-660-7300 / 대전 042-280-3100 / 광주 062-606-8300

대표번호 1588-7557 참좋은여행